

서양법제사 기말고사 - 2008.6.18.

- 고사시간은 2시간 입니다.
- 자신이 소지한 자료에 한하여 자유로이 참조 가능합니다.
- 아래 세개의 문항 중 **두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답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확변만 기재**하고, 이름과 학과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문1] 아울루스는 로마시로 이사오게 되어, 로마에 사는 자기 친구 티티우스에게 부탁하여 집을 한 채 매수하도록 하였다. 티티우스는 누메리우스가 매물로 내놓은 집을 둘러본 다음, 비록 지금은 앞에 있는 가게 건물 때문에 전망이 가려있지만, 한 층을 더 올리면 매우 쾌적한 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에 문제가 있는지를 누메리우스에게 문의하였다. 누메리우스는 티티우스가 말한대로 1층을 더 올리면 최상급의 주거로 손색이 없다고 답하였고, 티티우스는 그 집을 매수하였다. 티티우스는 아울루스로부터 매매대금조로 받은 돈을 누메리우스에게 지급하고 그 집을 매수하고 인도 받았다. 아울루스가 이사를 마치고 증축공사를 시작하자, 집 앞 가게 건물 주인 세이우스는 아울루스에게 증축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루스가 그 이유를 묻자, 원래 이 집과 가게는 모두 세이우스 소유였는데, 세이우스가 이 집을 루키우스에게 팔때 루키우스와 사이에 문답 서약으로 그 집을 증축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그 문답서약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였다. 루키우스는 그 후 누메리우스에게 이 집을 팔고 이사 나갔고, 누메리우스는 그런 제약이 자기 집에 있는지 모르고 그 동안 거주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루스, 티티우스, 누메리우스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문2] 스티쿠스는 퀸투스로부터 5년간 로마 교외에 있는 이 사건 올리브 농장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자이다.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퀸투스는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게 되어 자신의 전 재산을 가이우스에게 매도하였다. 가이우스와 퀸투스는 이 올리브 농장의 임차 기간이 아직 2년 가량 남아 있으므로, 그 동안 스티쿠스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가이우스는 1년 남짓 뒤에 스티쿠스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쿠스, 퀸투스, 가이우스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문3] 파울루스와 그라쿠스는 당나귀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동업으로 경영하고 있다. 무키우스는 그라쿠스와 만나 자신의 집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대리석 조각 작품을 언덕 위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주도록 부탁하고 운반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라쿠스는 이미 예약된 다른 운반 작업을 나가야 하므로, 파울루스가 조각품을 싣고 당나귀를 몰고 언덕을 올라 가던 중, 무게를 못 견딘 당나귀가 뒤로 미끌어 지면서, 그 부근을 지나가던 마그너스의 노예 포시아를 덮쳐서, 포시아가 사망하고, 석재는 완전히 파손되었다.

파울루스, 그라쿠스, 무키우스, 마그너스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끝.